



##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의 분석과 이용

Analysis and Application of Records on the Succession to the Royal Throne in the Latter Period of Silla

---

저자 (Authors)	Kim, Chang-Kyum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 (10)</a> , 2007.8, 179-222(44 pages) <a href="#">SILLASAHAKPO (10)</a> , 2007.8, 179-222(4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75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1754</a>
APA Style	(2007).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의 분석과 이용. 신라사학보(10), 179-22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3 10:4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의 분석과 이용

金昌謙\*

- |                         |                   |
|-------------------------|-------------------|
| I. 머리말                  | V. 금석문의 자료와 내용    |
| II. 《삼국사기》 소재 자료와 특징    | VI. 여러 자료의 특성과 이용 |
| III. 《삼국유사》 소재 자료와 특징   | VII. 맺음말          |
| IV. 중국 25사 ‘신라전’ 자료와 특징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 자료의 기록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 분야 연구를 위한 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분야의 관련 문헌자료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 25사 중에서 《舊唐書》·《新唐書》·《新五代史》와 《자치통감》·《唐會要》·《五代會要》·《冊府元龜》 등이 있고, 금석문 자료로는 <葛項寺石塔記>·<敏哀大王石塔記>·<開仙寺石燈記>·<皇龍寺九層木塔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논저 : <강수와 신라사회> 《진단학보》 101, 2006 ; <신라 憲安王의 즉위와 그 치적> 《신라문화》 26, 2005 ; <미륵사지 석탑 발견 명문의 ‘大伯士奉聖’> 《백산학보》 70, 2005 ; <신라시대 漢山州에 대하여> 《중앙사론》 21, 2005 ; <신라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외 다수

刹柱本記> · <新羅敬順王殿碑> 등이 있다. 필자는 이들 자료의 내용에서 왕위계승과 관련한 요소를 항목으로 설정하여 자료별로 분석하고, 이들 자료들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실제 연구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서는 《삼국사기》의 각왕 즉위조 기록을 중심으로 하면서, 《삼국유사》의 왕력 기록을 보완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들 기록에 모순점이나 누락 부분은 《구당서》 · 《신당서》 · 《신오대사》를 이용하여 우선 보완하고,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신라 당대에 만들어진 금석문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사서들을 후대에 집합 정리한 《당회요》와 《책부원구》 등을 이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 금석문, 왕위계승

## I. 머리말

전통시대 왕족국가에서 체제와 권력의 정점인 君主(國王)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왕위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기에 왕위계승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국왕의 존재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이기에, 전통시대에 편찬된 역사서를 비롯한 역사자료에는 각 왕의 출신과 신상 및 행적과 관련한 많은 것을 기록하였다.

신라 하대에는 왕위계승이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혼란한 양상을 보였기에 연구자들은 그 특징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노력하였다.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정치과정을 연계한 연구와<sup>1)</sup> 하대 왕위계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비롯해,<sup>2)</sup> 혹은 개별 각왕의 즉위과정에 대

1) 李基東, <新羅 下代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한 분석을 통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sup>3)</sup>

이 글에서는 이들 자료에서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 기록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특징과 이용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필자가 최근까지 신라 하대 왕위 계승을 주제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자료의 이용과 판단에서 겪어야 했던 고민과 갈등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라 하대 왕위계승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들 자료에는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어,<sup>4)</sup> 앞 시기에 사라진 고구려·백제·가야 등과 삼국시대 신라의 여러 왕들의 왕위계승 자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막상 연구와 저술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접해보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신라 하대 왕위계승의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를 꼽아보면, 우선 문헌자료로는 우리의 대표적인 관찬사서인 《삼국사기》와 고대사에 대하여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찬사서임에도 사료적

2)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3) 신라 하대 왕위계승에 대한 연구논저는 대단히 많다. 그 연구사적 정리는 金昌謙, 앞의 책, ‘연구사 정리’(1~14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4)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대의 고려사나 조선사에 관한 자료들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대단히 영성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시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고대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고대의 여러 왕조 중에서도 이른바 천년사직이라 일컬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가장 늦게까지 존속하였고, 후대인들에게 많은 문화요소가 직접 간접적으로 계승되어진 신라는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치가 충분한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 사서로는 정사인 25사 중에서 신라 하대 왕위계승 자료가 실려 있는 《舊唐書》, 《新唐書》, 《新五代史》를 비롯하여 《자치통감》, 《唐會要》, 《五代會要》, 《冊府元龜》 등이 있다. 한편 당대에 작성된 여러 가지 금석문 자료가 있어 곳곳에 조금씩 왕위계승 관련 기록이 산재되어 있는데, 필자가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는 <葛項寺石塔記>, <敏哀大王石塔記>, <開仙寺石燈記>, <皇龍寺九層木塔剎柱本記>와, 비록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新羅敬順王殿碑> 등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 자료의 내용에서 왕위계승과 관련한 요소를 항목으로 설정하여 자료별로 분석하고, 이들 자료들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실제 연구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하는가를 제시하겠다.

이 연구는 향후 이 분야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선택과 이용에 도움을 줄 것이며, 더불어 이 분야와 관련하여 사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II. 《삼국사기》 소재 자료와 특징

《삼국사기》에는 각왕의 본기 첫머리에 왕위계승 관련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 왕에 대한 직접적인 것으로 ① 王名, ② 王의 姓, ③ 諱를 적었다. 2) 그리고 가계를 밝혔는데, 가계는 ① 먼저 父系에 대한 것으로 ④ 遠祖 내지는 中祖와의 관계, ⑤ 父의 官等·官職과 이름을 비롯하여, ⑥ 兄弟관계 등을 적고, ② 이어 母系에 관한 것으로 ⑦ 母의 姓, ⑧ 이름, ⑨ 母의 父의 官等·官職과 이름을 적고, ③ 그 다음

에는 妃系에 대한 것으로 ㉠ 妃의 姓, ㉡ 妃父의 이름과 官等·官職을 기록하였다. 3)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왕의 즉위 이전의 경력을 밝히면서 즉위방법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각왕의 즉위조에 실린 기사를 근거로 하여 《삼국사기》의 왕위계승 자료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각왕 본기의 다른 편년기사에서 왕의 가계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가 있는데,<sup>5)</sup>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다만 이 글에서 고찰의 범위 설정을 신라 하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9에서 권12, 신라본기12까지에 실린, 이른바 《삼국사기》의 3시기 구분법에 따르면 신라 하대의 개시라고 하는 제37대 宣德王에서부터 신라 마지막 왕인 제56대 敬順王까지에 실린 20명의 각 왕에 대한 기록만을 그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각 항목에 맞추어 그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5) 이 글의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한 각 왕의 왕위계승 관련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별도파일



앞의 <표 1>에 의하여 《삼국사기》의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대에 실제 재위한 전체 20명의 왕 가운데 개별 왕의 姓氏를 직접 기재된 경우는 5명(25%)인데, 그 중에서 김씨로 표시된 자가 4명(20%), 박씨로 표시된 자가 1명(5%)이다. 반면에 개별 왕의 성씨를 직접 기재치 않은 경우가 나머지 15명(75%)이나 된다. 왕의 이름은 20명 전부(100%)가 표기되어 있다. 그 중에는 한 가지 이름만을 가진 경우가 14명(70%)이고,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경우가 6명(30%)이다. 그리고 전왕과의 혈연관계가 기재된 경우는 20명 가운데 15명(75%)이고, 표시가 없는 왕이 5명(25%)이다.

한편 각 왕들의 가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가계는 父系·母系·妃系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부계라 하면 親家, 모계는 外家, 비계는 妻家를 말한다.

먼저 부계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면, 遠祖와 中祖가 기재된 경우는 전체 20명의 왕 가운데 8명(40%)이고, 12명(60%)은 무표시에 해당한다. 또 父에 대한 기록이 있는 왕은 전체 20명 중 15명(75%)이고, 무표시는 5명(25%)이다.

그리고 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母의 이름이 기재된 왕은 전체 20명 가운데 15명(75%)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이름만 기재된 왕은 8명(40%)이고, 異稱이나 追封諡號를 포함하여 두개 이상의 이름이 기록된 왕은 7명(35%)이다. 반면에 母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왕은 5명(25%)이다. 한편 母의 姓은 20명 가운데 10명(50%)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성으로 표기된 왕은 8명(40%)이고, 2개의 성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왕은 2명(10%)이다. 반면에 표시가 없는 왕은 10명(50%)이나 된다. 그리고 母의 父에 대한 기록이 있는 왕은 전체 20명 가운데 2명(10%)이고, 표시가 없는 왕은 18명(90%)이다.

끝으로 비계를 살펴보면 20명 왕 중 왕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가 13명(65%)이고, 나머지 7명(35%)은 기록이 없다. 그런데 20명의 왕 중 3명 왕은 2명의 왕비를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기록에 의하면 전체 왕비 수는 23명으로 보아야 한다. 이럴 때 23명 왕비 중 정식 이름이 기재된 왕비는 9명(39%)이며, 나머지 14명(61%)은 무표시이다. 그리고 23명 중 성이 표시된 왕비는 11명(2개 성은 가진 경우 1명을 포함, 48%)이고, 12명(52%)은 기록이 없다. 또 23명 왕비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10명(2명으로 표시된 1명을 포함, 43%)은 있고, 나머지 13명(57%)은 무표시이다.

특히 각 왕의 왕위계승 형태는, 20명 중 계위는 7명(35%)이고, 유조는 3명(15%)이며, 반면에 3명(15%)은 추대이며, 5명(25%)은 찬탈을 통하여 즉위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상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수록된 하대 왕들의 왕위계승 관련자료를 전체 망라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삼국사기》는 하대 왕의 왕위계승에 관련하여 왕과 왕의 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모계·비계에 대해서도 전체의 반 정도는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계승방법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는 왕위계승 연구에 이용할 가치가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기본텍스트로 삼아야 한다.

### Ⅲ. 《삼국유사》 소재 자료와 그 특징

《삼국유사》의 내용은 상당 부분에서는 《삼국사기》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가치를 무시하

고 지나치게 《삼국유사》에 집착할 수만은 없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병행해서 연구되어야 하며, 결코 어느 하나에 집착할 성질의 것은 못되며,<sup>6)</sup> 《삼국유사》에 대한 보완관계 내지는 대안적인 성격에 있다.<sup>7)</sup>

《삼국유사》에는 <왕력>이 수록되어 있다.<sup>8)</sup> 이 <왕력>의 사료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 이 왕력이 정확히 무슨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삼국사기》가 참고한 것과는 다른 자료에 의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sup>9)</sup> 어쩌면 《삼국유사》의 <왕력>은 崔致遠의 《帝王年代曆》이나, 고려 초에 존재했던 《王代曆》,<sup>10)</sup> 또는 《歷代年表》를<sup>11)</sup> 참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왕력>에는 각 왕조별로 왕명을 기록하고 그 왕들에 대한 많은 부가적인 설명을 첨가하여 놓았다. 우선 왕명의 다른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왕의 부·모·비를 적고 있다. 모와

6) 李基白,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 《歷史學報》 107, 1985, 1쪽.

7) 金相鉉,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 15, 1985 ;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고찰>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8) 왕력편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이 참고가 된다. 이 왕력편은 《삼국유사》 전체에서 특이한 성격을 지닌 부분으로 다른 8편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왕력은 年表로 되어 있어서, 때로는 왕력을 《삼국유사》의 한 편이 아닌 附錄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에 따르면 전체 9편 중 제1편은 권1의 紀異이고 제2편은 권2의 紀異가 되므로, 이보다는 왕력은 독립된 편으로 봐야만 《삼국유사》의 9편이 비로소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왕력을 하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李基白, 앞의 논문, 2쪽).

9) 李基白, 앞의 논문, 4~5쪽.

10)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고려 초에 작성된 석가탑중수기에 보인다.

11) 1279년(충렬왕 5)에 간행된 연표이다(金相鉉, 앞의 논문 ; 蔡尙植, <至元 15년(1278) 仁興社刊 ‘歷代年表’와 ‘三國遺事’>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비의 경우에는 그 이름은 물론하고 母와 妃의 父 이름과 姓氏까지도 각각 기록하였다. 이어 왕이 즉위한 해의 干支와 治世의 연수를 적고, 가끔 왕릉의 위치도 기록하였다. 이처럼 《삼국유사》의 <왕력>은 국왕에 대한 것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sup>12)</sup>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 관계 자료로 대단히 중요한 이용 가치가 있다.

본장에서는 이 <왕력>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왕력>에 적힌 기록만을 가지고 《삼국유사》의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 전부라고 할 수 없고, 또 가급적 모든 자료를 망라하기 위하여, 《삼국유사》의 여러 다른 편에 적힌 기록들을 보완자료로 이용하겠다.<sup>13)</sup> 그렇게 신라 하대 왕위계승 자료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종합 정리하여 다음의 <표 2>를 작성하였다.

---

12) 李基白, 앞의 논문, 12쪽.

13) 이 글 말미에 제시한 부록의 각 왕별 왕위계승 관련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 별도



<표 2>에 의하여 《삼국유사》의 하대 왕위계승 관련 자료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20명 왕 중 그의姓이 직접 기재된 경우는 20명(100%) 모두인데, 그 중에서 金氏로 표시된 왕이 17명(85%)이고, 朴氏로 표시된 왕이 3명(15%)이다. 이처럼 《삼국유사》는 20명 왕의 성씨를 모두 기록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삼국사기》의 기록보다 훨씬 상세한 편이다.

한편 왕의 이름은 20명(100%) 전부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름만 가진 왕은 15명(75%)이고, 두 가지 이상으로 표기된 왕은 5명(25%)이다. 그리고 전왕과의 혈연관계가 기재된 경우는 1명(5%)이고, 나머지 19명(95%)은 직접적인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각 왕들의 가계에 대한 기록은 부계·모계·비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부계에 대한 기록부터 살펴보면 遠祖나 中祖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전체 20명 왕 중 5명(25%)이고, 15명(75%)는 무표시이다. 그리고 父에 대한 기록이 있는 왕은 전체 20명 중 14명(70%)이고, 무표시는 6명(30%)이다. 또 형제에 대한 기록이 있는 왕은 20명 중 7명(35%)이고, 나머지 13명(65%)은 표시가 없다.

다음에 母系에 대하여 살펴보면, 母의 이름이 기재된 왕은 20명 가운데 16명(80%)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이름만 기재된 왕은 12명(60%)이고, 둘 이상의 이름을 가진 왕은 4명(20%)이다. 반면에 기록이 없는 왕도 4명(20%)이나 된다. 한편 모의 성에 대해서는 20명 모두가 표시치 않아, 《삼국사기》에 비하면 훨씬 소략한 편이다. 그러나 모의 성을 추측할 수 있는 母의 父에 대한 기록이 20명 가운데 7명(35%)이 있고, 기록이 없는 경우는 13명(65%)이다.

비계를 살펴보면, 왕비는 20명의 왕 중 왕비(1명의 남편 포함)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15명(75%), 없는 경우가 5명(25%)이다. 그런데

20명의 왕비 가운데 정식 이름이 기재된 것이 14명(70%)이고, 나머지 6명(30%)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특히 20명의 왕비 모두의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단히 빈약하다. 그리고妃의父에 대한 기록은 20명 중 있는 경우가 10명(50%), 없는 경우가 10명(50%)이나 된다.

한편 왕위계승방법에 대해서는 다만 3명(15%)만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가 찬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왕력>에 실린 기록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편의 기록을 참고하여 《삼국유사》에 실린 하대 왕들의 왕위계승 관련 자료들을 전부 망라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삼국유사》는 하대 왕의 왕위계승에 관련하여 왕은 물론 왕의 부계·모계·비계 모두에 대해서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용 가치가 큰 것을 알았다. 반면에 왕의 즉위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이 빈약하고, 더구나 선덕왕이 《삼국사기》에서는 추대되었다고 한 것과 달리 직접 찬탈한 것으로 기록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 IV. 중국 25사 ‘신라전’ 소재 자료와 그 특징

중국 正史인 25史에는 각각 外國列傳이 있는데, 이곳에는 <東夷傳> 혹은 <朝鮮傳>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고대사의 문헌자료가 희귀하다는 점에서 이 기록을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여 왔다. 특히 그것이 우리측의 고대사 문헌자료보다 저작시기가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오고 있다.<sup>14)</sup> 이들 25사 중에서 정식으로 신라라는 국명을 표기하여 <新羅傳>을 수록하고

14) 朴性鳳, 《東夷傳 新羅關係資料》, 慶熙大學校傳統文化研究所, 1988, 13쪽.

있는 정사는 《梁書》, 《隋書》, 《南史》, 《北史》,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新五代史》 등 8개 史書이다. 이들 사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시대구분법에 대비하면 《양서》, 《수서》, 《남사》, 《북사》의 <신라전>은 신라 상대 중에서도 중고기의 사정만을 담고 있을 뿐, 이 글에서의 고찰 대상 시기로 정한 신라 하대의 내용은 전무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반해 《구당서》<sup>15)</sup>와 《신당서》<sup>16)</sup>의 <신라전>은 신라 상

15) 《舊唐書》 <東夷列傳>은 高[句]麗·百濟·新羅·倭國·日本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첫머리에는 각국의 위치·관직·생활상 등에 대한 설명적인 상대기술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唐帝國이 이들 지역에 대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東夷諸國에 대해 풍부하고 자세한 資料를 구할 수 있어 《구당서》 <동이열전>은 前史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新史實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전은 唐帝國과의 관계 사건에 대한 기술을 싣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빙성이 높다. 당제국이 삼국의 각각과 모두 깊은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 기술은 卽事的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구당서》 <東夷列傳>은 삼국 말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 2, 1988).

16) 《新唐書》 <東夷列傳>은 高[句]麗·百濟·新羅·日本·流鬼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舊唐書》 <東夷列傳>과 비교하여 보면 《舊唐書》 <東夷列傳>에 수록되어 있는 倭國傳을 日本傳에 흡수하고 새로이 流鬼傳을 첨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年次를 생략하여 年號에 그치고 있으며, 각국 내의 관직을 생략하여 중국인들이 보기 쉽도록 고치고 있다. 또한 《구당서》에는 보이지 않는 長文의 설화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신라전의 말미에 있는 張保臯와 鄭年의 友情說話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新唐書》는 宋代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東夷에 대한 唐代의 기록이 당시에 많이 남아 있어 前史書 東夷傳보다 훨씬 내용이 충실하고 각전에 국가사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나 《舊唐書》에 비해 사료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대의 중고기부터 하대까지—즉 621년에서 841년까지<sup>17)</sup>—의 사정을 담고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된다. 그리고 《신오대사》<sup>18)</sup>의 <신라전>은 신라 말기—923년에서 938년까지<sup>19)</sup>—의 사정을 담고 있어서 좋은 보완자료가 된다. 그러나 《구오대사》 <신라전>은 어느 특정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신라의 습속만을 담고 있어,<sup>20)</sup> 참고가 되지 못한다.<sup>21)</sup>

결국 여기서는 신라 하대의 사정을 담고 있는 《구당서》와 《신당서》 그리고 《신오대사》의 <신라전>만을 검토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에 실린 하대 왕위계승 관련 자료의 내용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17) 朴性鳳, 앞의 책, 16쪽의 도표.

18) 《新五代史》의 <四夷附錄>은 總3卷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契丹史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1·2권은 거란 관계를 신고, 3권에는 高麗·新羅를 비롯한 奚·吐渾·達靺 등 13개 주변 민족의 상태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 순서에 있어서도 夷蠻戎狄을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고 혼합하여 권수만 나누었다. 《신오대사》에서는 전통적인 화이관을 나타내는 ‘四夷’라는 통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이것이 열전 속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附錄’이라 하여 열전보다도 더 격하시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 朴性鳳, 앞의 책, 16쪽의 도표.

20) 참고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新羅, 其國俗重九日相慶賀, 每以是月拜日月之神. 婦人以髮繞頭, 用綵及珠爲飾, 髮甚鬢美(《구오대사》 권138, 외국열전 3).

21) 《구당서》, 《신당서》 및 《구오대사》, 《신오대사》 등에 있는 <신라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朴性鳳, 앞의 책, 17~18쪽의 내용이 좋은 참조가 된다.

<표 3> 별도파일



앞의 <표 3>에 이하여, 중국 정사의 <신라전>에 실린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대 전체 20명의 왕 중 기록이 있는 왕은 8명(40%)이고, 나머지 12명(60%)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0명의 왕 가운데 성씨가 기재된 경우는 6명(30%)인데, 그 모두가 김씨로 되어있다. 이 중 성씨 표시가 두 곳 다 있는 왕은 1명(5%)이고, 한 곳만 되어있는 왕은 5명(25%)이다. 한편 왕의 이름은 20명 중 기록이 있는 왕은 8명(40%)인데,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다같이 6명 왕, 《신오대사》에는 2명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전왕과의 혈연관계에 대해서는 20명 중 4명(20%)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는 왕들의 가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부계·모계·비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부계에 있어서 遠祖와 中祖에 대한 언급이 1명 왕(5%)만이 두 곳에 다 언급되어 있고, 왕의 형제에 대한 언급은 1명(5%) 왕만이 《신당서》 한 곳에 언급되어 있다.

다음에 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의 정식 이름은 20명 왕(100%) 모두 기록되어 있다. 다만 2명 왕의 경우에 있어 모의 성을 표기하고 있어 전체의 10%에 해당하는데, 《구당서》와 《신당서》 두 곳에 다 기록된 경우가 1명(5%)이고, 《구당서》 한 곳에만 된 경우가 1명(5%)이다. 그러나 모의 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다.

다음에 비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의 정식 이름은 20명 왕 모두 언급이 없다. 비의 성씨에 대해서는 3명(15%)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당서》와 《신당서》 두 곳에 다 기록된 경우가 2명(10%)이고, 《구당서》 한 곳에만 기록된 경우가 1명(5%)이다. 그러나妃의 父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중국 정사의 <신라전> 가운데서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구당서》와 《신당서》, 그리고 《신오대

사》뿐이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구당서》와 《신당서》가 내용이 가장 풍부한 편이지만 사실은 하대의 첫 왕인 선덕왕에서 흥덕왕까지 6명의 왕에 대한 기록만 가지고 있고, 《신오대사》는 단지 신라 멸망 직전의 경명왕과 경순왕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은 하대 20명의 왕 가운데서 8명의 왕에 대해서만 기록이 있고, 희강왕에서 신덕왕까지 그리고 경애왕을 포함한 12명의 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다.

한편 비록 중국 25사에는 들지 않으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당회요》·《오대회요》·《자치통감》·《책부원구》 등이 있다. 여기에는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왕의 출신 신분 및 책봉과 관련한 기록이 있어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국 사서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관련한 직접·간접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최대한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V. 금석문의 자료와 그 내용

우리의 고대사 연구에는 문헌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의 유물·유적들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물·유적 중에서도 문자의 기록을 새겨놓은 금석문은 역사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문헌으로 전하는 것은 애매한 점도 있고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금석문은 비록 그것이 특정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당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오히려 가장 진실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문헌자료의 기록이 불충분하고, 또한 중요한 사실이 많이 탈락된 성격

의 것이라면 금석문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sup>22)</sup>

그러나 필자가 모든 금석문을 소재 현장을 탐방하여, 그 내용을 확인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금석문집류에서 그 석문을 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저본으로는 조선총독부 편 의 《조선금석총람》 上·下(1919), 황수영 편 의 《한국금석유문》(일지사, 1976), 이난영 편 의 《한국금석문추보》(중앙대학교출판부, 1969 : 아세아문화사, 1976), 조동원 편 의 《한국금석문대계》(원광대학교출판부, 1979~1998), 허홍식 편 의 《한국금석전문》 古代·中世上·中世下(아세아문화사, 1984), 《장서각소장 탁본자료집》 1.고대·고려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등에 실린 원문을 비롯하여,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의 《역주한국고대금석문》 3(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과 이지관 역 의 《고감역주 역대 고승비문-고대편》(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4), 국사편찬위원회 편 의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1995·1996)이 있다.

그러나 신라 하대의 왕, 제37대 선덕왕부터 제56대 경순왕까지의 왕들에 대한 왕위계승 관련자료가 기록된 금석문은 몇 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중국 정사의 왕위계승 관련자료의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는 살펴볼 수가 없다.

22)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232쪽. 한편 이기백은 일찍이 사료의 인멸이 심한 고대사의 경우에는 금석문이 사료로서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는 차이를 둘 수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즉 사료로서의 가치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요도에서는 문헌자료만 못하다고 하였다(李基白, <新羅 下代の 執事省>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87쪽).

다만 여기서는 어떤 금석문에 어느 왕의 가계와 그 왕의 즉위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7대 선덕왕에 관한 금석문으로는 771년(혜공왕 7) 12월 14일에 작성된 <성덕대왕신증명문>이 있다. 여기에는 선덕왕이 즉위하기 전에 그가 肅正臺와 修城府의 수를 兼職하였다는 기록만 있고, 애석하게도 직접적인 그의 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제38대 원성왕의 경우는 <갈항사석탑기>에 왕모에 대한 기록이, 또 <송복사비문>에는 왕모·왕모부·왕비 및 왕비의 외조부에 대한 기록이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sup>23)</sup>

그 뒤를 이은 제39대 소성왕, 제40대 애장왕, 제41대 헌덕왕의 왕위계승에 관련한 금석문자료는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새로운 금석문의 출현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제42대 흥덕왕은 <흥덕왕릉비문>의 조각 명문이 발견되어<sup>24)</sup> 죽을 때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어 즉위시 나이를 추측할 수 있으며,<sup>25)</sup> 또 그의 성격을<sup>26)</sup> 비롯하여 흥덕왕은 신라 太祖星漢의 24代孫임과 그의 정치개혁에 대한 추측도 가능하다.<sup>27)</sup> 그리고 <봉암사지증대사

23) 종전에는 성덕대왕신증의 명문에 보이는 執事部侍郎 阿飡 金某를 敬信으로 판독하였으나 최근에 黃壽永의 再檢으로 이는 體信으로 수정되었다. 현재 이것은 대체적으로 수긍되는 경향이므로(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앞의 책, 1984, 152쪽 주21), 필자도 이를 원성왕에 관한 금석문자료에서 제외한다.

24) 1957년 4월 閔泳珪·崔南善에 의해 조사되었다(閔泳珪, <新羅興德王陵 碑斷石記>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25) 閔泳珪, 앞의 논문, 626쪽.

26) 閔泳珪, 앞의 논문, 628쪽.

27) 이는 1977년 8월 國立慶州博物館과 慶州史蹟管理事務所의 공동조사 결과 새로이 얻어진 명문 조각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李基東의 연구논문이 있다(<新羅 太祖星漢의 問題와 興德王陵碑의 發見>, 앞의 책 및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같은 책, 159~162쪽 참조).

적조탑비>에도 흥덕왕의 즉위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제43대 희강왕은 왕위계승 관련 금석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제44대 민애왕의 경우는 <민애대왕석탑기>에 그의父, 그와 이 탑의 건립자인 경문왕과의 관계 및 그의 죽은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sup>28)</sup> <쌍계사진감선사비명>에 민애왕의 왕위에 오름에 대한, 또 <華嚴結社會願文>에는 王母에 대한 언급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제45대 신무왕의 경우 금석문자료는 보이지 않고, 제46대 문성왕은 <창림사무구정탑원기>에 從弟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제47대 헌안왕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 즉위전의 지위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제48대 경문왕은 우선 <대승복사비명>에 왕의 성품과 학문을 비롯하여 즉위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아울러 太弟, <개선사석등기>에 왕과 왕비에 대하여,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에는 太弟를,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명>에는 王妃·世子·太弟를, <지증대사적조탑비명>에는 왕의 누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한편 제49대 헌강왕의 경우, <낭혜화상비명>에서 왕의 성품과 재질을 비롯하여 王孫·介弟를, <대승복사비명>에서 왕의 인품과 덕행을 언급하였다.

제50대 정강왕의 경우는 특별한 금석문자료가 없다.

제51대 진성여왕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와 <대승복사비>에 선제(경문왕)에 대한 기록이 있고, 조선 전기의 문인 曹偉가 문집 《梅溪集》에 실린 <書海印寺田券後>에는 그녀와 情夫에 대한 언급이 있고,<sup>29)</sup> <智異山華嚴寺事蹟>에 그녀를 ‘北宮長公主’라고 한 기록이

28) 黃壽永, <新羅敏哀大王石塔記> 《史學志》 3, 1969 : 《韓國의 佛敎美術》, 同和出版社, 1978.

29) 이에 대해서는 今西龍, <伽耶山海印寺의 新羅時代의 田券について>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33, 539쪽과 李弘植, <羅末의 戰亂과 緇軍>

있어<sup>30)</sup> 대단히 흥미롭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로서는 제52대 효공왕,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 제55대 경애왕에 대한 금석문자료는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신라 마지막 왕인 제56대 경순왕은 <新羅敬順王殿碑>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直系先代를 밝혀놓았다. 비록 비 자체는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내용이 풍부하여 나름대로 이용가치가 있다.

아울러 비록 후대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나, 《東文選》과 《梅溪集》, 그리고 四山碑銘을 비롯한 崔致遠의 작품에 대한 註釋을 가한 글들을 모아 엮은 《孤雲集》과 《崔文昌侯文集》은 금석문 자료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좋은 참고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석문자료는 원래 그 개별 왕에 대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만약에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출현한다면 좀더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 Ⅵ. 여러 자료의 특성과 이용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 관련자료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왕위계승과 관련하여서는 문헌자료에서도 고대사의 다른 특정분야의 관련자료보다는 조금 많은 언급이 있어 다행스럽다. 그리고 금석문자료에서도 조금씩이나마 직접 간접적인 기록이 있어 이용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문헌자료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이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552~555쪽 참조.

30) <佛國寺·華嚴寺蹟> 《考古美術資料》, 考古美術同人會, 1965.

있고, 《구당서》, 《신당서》, 《신오대사》 등의 중국정사의 <신라전>이 있다. 그리고 당대에 만들어진 금석문자료도 있다.

먼저 문헌자료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중국정사의 <신라전>에 기재된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 관련자료들을 1) 왕 자신과, 2) 왕의 가계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1)은 ① 성씨, ② 이름, ③ 전왕과의 혈연관계로 나누었다. 반면에 2)는 먼저 2)-① 왕의 부계에 대한 것으로, ① 왕의 원조·중조, ② 왕부의 이름, ③ 왕의 형제를 비롯하여, 2)-② 왕의 모계에 대한 ① 왕모의 이름, ② 왕모의 성, ③ 왕모의 부, 그리고 2)-③ 왕의 비계에 대한 ① 왕비의 이름, ② 왕비의 성, ③ 왕비의 부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하대 전체 왕과 왕부·왕모 및 왕비의 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사례를 수치로 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문헌자료 소재 왕위계승 관련 자료의 계량적 비교(단위 %)

구분 자료명	왕			가 계									계승 방법
	성	이름	전왕과 혈연관계	부 계			모 계			비 계			
				원중조	부명	형제	모명	성	모부	비명	성	비부	
삼국사기	25	100	75	40	75	40	75	50	10	39	48	43	90
삼국유사	100	100	5	25	70	35	80	0	35	75	0	50	15
중국정사	30	40	20	5	10	5	10	0	0	15	0	0	30

위의 <표 4>에서 보면 《삼국사기》는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 자료 가운데서 왕 자신에 관련된 것으로는 왕의 이름(諱)은 전체 왕 20명 모두를 기록하고 있어 100%이며, 전왕과의 혈연관계에 대해서는 70%라는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 또 왕의 가계에 있어서는 부의 형제에 대해서 전체의 40%로 《삼국유사》의 35%와 거의 같다. 모계에 있어서는 모의 이름은 전체의 75%를 기록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 비계에 있어서는 왕비의 성을 전체의 48%나 기록하고 있어 《삼국유사》나 중국 정사의 <조선전>이 전혀 기록이

없음에 비하여 《삼국사기》만이 유일한 기록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삼국사기》는 어느 항목도 거르지 않고 모두 언급하고 있으므로 자료로써 이용가치가 대단히 크다.

이에 비하여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왕의 성과 이름은 20명 모두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100%를 보이고 있다. 왕의 가계에 대해서는 부계는 원조·중조의 이름이 비록 25%만 언급되어 있으나 《삼국사기》나 중국 정사의 <조선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다. 특히 부의 이름은 전체 왕의 70%나 기재되어 있고, 모계는 모의 이름이 《삼국사기》와 거의 비슷하게 전체의 80%를 기록하고 있으나, 모의 성씨는 전혀 언급이 없고, 모의 부에 대해서 위의 3가지 문헌자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언급을 갖고 있다. 비계는 왕비의 성은 전혀 언급이 없다. 왕비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정국 정사 <조선전>의 왕위계승 관련자료는 그 기록자체가 하대 왕들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의 하대 초기의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초기 왕들의 왕위계승 관련자료로서는 그 이용가치가 큰 것이지만, 이 기록의 비율로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의 전체로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리고 금석문에 기록된 하대 왕위계승 관련자료는 그 빈도수를 통계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한 것이다. 왜냐하면 금석문이라는 것은 비록 오늘에는 없다하더라도 추후 언제 어디서에서나 새로이 발견 조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지금의 통계적인 분석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이상의 자료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하대 왕위계승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앞의 <표 4>에서 보듯이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 관련자료가 가장 많

이 기재된 것은 《삼국사기》의 각왕 본기의 즉위조와 《삼국유사》의 왕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완벽을 기할 수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때에는 《삼국사기》의 경우는 각왕의 본기의 즉위조의외의 다른 기년조의 기록에서 보충을 하고, 《삼국유사》의 경우는 왕력 외의 다른 편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하대 각왕의 관련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자료를 일단 중심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그 문제점 중에서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하대 왕들에 대한 기록 사이에는 양자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 탈락된 것,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sup>31)</sup>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위계승 관련자료에는 대체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보다 더 많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사서의 자료를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당시의 금석문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왕의 가계에 대한 기록 또한 이들 사서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차이는 편찬 당시 찬자의 착오나 누락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자료의 내용을 입증해주는 금석문자료를 중요한 보충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31) 이러한 현상은 물론 두 사서의 편찬시기가 다른데서 기인할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도 두 사서가 이용한 기본 자료의 차이 및 편찬자의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5쪽).

한편 중국 정사에 기재된 내용은 편찬자 당사자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필요로 하는 것만을 간략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소략하고 혹은 일부 왕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킨 경우도 있다. 더구나 중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외교상 분식 내지는 의례적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대사—특히 지금 다루고자하는 부분에서의—사료 부족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록을 엄정한 비판을 가한 뒤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록 25사에는 들지 않으나 한국사에 대하여 여기에도 없는 것들까지 포함하여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치통감》·《당회요》·《오대회요》·《책부원구》와 《문헌통고》의 내용도 귀중한 보완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는 편인 족보류는 비록 많이 있으나, 그자체가 워낙 후대에 이루어진 두찬에 속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가급적 참조를 자제해야 한다.

## Ⅶ. 맺음말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 사료는 비록 상대나 중대에 비해 많은 듯하나, 엄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시대가 상대적으로 후대인만큼 금석문이 남아있어 약간의 참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국 사서에는 신라 하대의 절반가량의 왕만 기록되어 있고, 멸망기의 왕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사료의 영성

함이 있지만, 그러나 사서들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것보다는 왕과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사료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헌자료로는 관찬사서인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에 누락된 부분을 잘 보완해주는 사찬사서인 《삼국유사》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중국 사서의 경우, 신라에 대한 것은 본래 자신들의 역사서술과 이해를 위해 보충수단으로 기재한 것이기에 일부 잘못 기재된 점도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관련 자료가 워낙 부족한 현실인만큼 치밀한 사료비판을 가해가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석문자료는 그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많은 두찬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석문자료 중에는 현존하는 그 어느 문헌자료보다도 작성시기가 앞서고, 실제 당시 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점에서 그 이용가치가 높다.

결국 신라 하대 왕위계승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문헌사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기본텍스트로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록에 모순점이나 누락 부분은 중국 사서 중에서 신라사를 충실히 기록한 《구당서》와 《신당서》 그리고 《신오대사》를 이용하여 우선 일차적으로 보완해보고,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신라 당시에 만들어진 금석문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 사서들이 내용을 집합 정리한 《자치통감》·《당회요》·《오대회요》와 《책부원구》 등을 이용해야 한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新五代史》, 《資治通鑑》, 《唐會要》, 《五代會要》, 《冊府元龜》, 《崔文昌侯全集》, 《高麗史》, 《東文選》.
- <佛國寺·華嚴寺蹟> 《考古美術資料》, 考古美術同人會, 1965.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2.
- 조선총독부 편, 《조선금석총람》 上·下, 1919.
- 황수영 편,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76.
- 이난영 편, 《한국금석문주보》, 아세아문화사, 1976.
- 조동원 편, 《한국금석문대계》, 원광대학교출판부, 1979~1998.
- 허홍식 편, 《한국금석진문》 古代·中世上·中世下, 아세아문화사, 198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 탁본자료집》 1.고대·고려편, 1997.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이지관 역,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고대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4.
-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 2, 1988.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3, 1996.
- 金相鉉, <三國遺事 王曆篇 檢討-王曆 撰者에 대한 疑問-> 《東洋學》 15, 1985
- 조동일, <삼국유사의 기본특징 비교고찰>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今西龍, <伽耶山海印寺の新羅時代の田券について> 《新羅史研究》, 國書刊行會, 1933.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閔珪珪, <新羅興德王陵碑斷石記> 《歷史學報》 17·18합집, 1962.
- 朴性鳳, 《東夷傳 新羅關係資料》, 慶熙大學校傳統文化研究所, 1988.
- 李基東, <羅末麗初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歷史學報》 77, 1978.
- 李基東, <新羅 太祖星漢의 問題와 興德王陵碑의 發見> 《大丘史學》 15·16합집, 1978.

- 李基東, <新羅 下代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 李基白, <三國遺事 王曆篇의 檢討> 《歷史學報》 107, 1985.
- 李基白, <新羅 下代의 執事省>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 李弘植, <羅末의 戰亂과 緇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 崔英成, 《註解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87.
- 黃壽永, <新羅敏哀大王石塔記> 《史學志》 3, 1969.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 上, 堉書房, 1975.

ABSTRACT

# Analysis and Application of Records on the Succession to the Royal Throne in the Latter Period of Silla

Kim, Chang-Kyum

There are many kind of history books which include records on the succession to the royal throne in the latter period of Silla. They are Samguksagi and Samgukusa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and Sillajeon of Gudangseo, Sindangseo, Sinodesa and Jachitonggam, Danghoeyo which were published in China. But epigraphs were Kalhangsa Seogtabgi, Gaeseonsa Seogdunggi and so on.

In the record's contents of the treatise, this paper analyzes elements of the succession to the royal throne, with understanding the record's characteristic this paper inform how to use these records in study.

Subsequently, First, kings' records of Samguksagi is basis for studying about the succession to the royal throne in the latter period of Silla. Second, Wangreok's records of Samgukusa must be used for supplying the material. Third, the records which Samguksagi and Samgukusa don't pertain are supplied by Gudangseo, Sindangseo, Sinodaesa. Fourth, nevertheless if it has a defect it must be supplied by epigraphs of Silla. Finally, it can be supplied

by Danghoeyo, Chaekbuwongu and so on.

Key words : Samguksaki, Samgukusa, Gudongseo, Sindongseo, Sinodaesa, Epigraph,  
Succession to the royal throne

논문 투고일 : 2007. 7. 2

심사 완료일 : 2007. 7. 25

〈부록〉 신라 하대 각 왕의 왕위계승 관련 자료

(A:삼국사기, B:삼국유사, C:중국 사서, D:금석문, E:기타 문헌)

1. 37대 선덕왕

- A-① 夏四月 上大等金良相與伊滄敬信 舉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 良相等諡王爲惠恭王(《삼국사기》 권9, 해공왕 16년)
- A-② 宣德王立 姓金氏 諱良相 奈勿王十世孫也 父海浪孝芳 母金氏 四招夫人 聖德王之女也 妃具足夫人 角干良品之女也 一云義恭阿滄之女 大赦 追封父爲開聖大王 尊母金氏爲貞懿太后 妻爲王妃(《삼국사기》 권9, 선덕왕 즉위조)
- A-③ 是月 王寢疾彌留 乃下詔曰 寡人本惟菲薄 無心大寶 難逃推戴 作其即位(《삼국사기》 권9, 선덕왕 6년 정월)
- B-① 第三十七 宣德王 金氏 名亮相 父孝方海干 追封開聖大王 卽元訓角干之子 母四招夫人 諡貞懿太后 聖德王之女 妃具足王后 狼品角干之女 庚申立 理五年(《삼국유사》 왕력)
- B-② 是爲惠恭大王 幼冲故 太后臨朝 政條不理 盜賊蜂起 … 故國有大亂 修爲宣德與金良相所弑(《삼국유사》 권2,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 C-① 建中四年 乾運卒 無子 國人立其上相金良相爲王 貞元元年 授良相檢校太尉 都督雞林州刺史寧海軍使新羅王 仍令戶部郎中蓋墳持節冊命(《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 동이전 신라)
- C-② 建中四年 死 無子 國人共立宰相金良相嗣(《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전)

2. 38대 원성왕

- A 元聖王立 諱敬信 奈勿王十二世孫 母朴氏繼烏夫人 妃金氏 神述角干之女 初惠恭王末年 叛臣跋扈 宣德時爲上大等 首唱除君側之惡 敬信預之 平亂有功 泊宣德卽位 卽爲上大等 及宣德薨 無子 群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周元宅於京北二十里 會大雨 關川水漲 周元不得渡 或曰 卽人君大位 固非人謀 今日暴雨 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 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衆議翕然 立之繼位 旣而雨止 國人皆呼萬歲 二月 追封高祖大阿滄法宣爲玄聖大王 曾祖伊滄義寬爲神英大王 祖伊滄魏文爲興平大王 考一吉滄孝讓爲明德大王 母朴氏爲昭文太后 立子仁謙爲王太子 毀聖德大王 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 考明德大王爲五廟(《삼국사기》 권10,

원성왕 즉위조)

- B-① 第三十八 元聖王 金氏 名敬愼 一作敬信 唐書云敬則 父孝讓大阿干 追封明德大王 母仁△一云知烏夫人 諡昭文王后 昌近伊己之女 妃淑貞夫人 神述角干之女 乙丑立理十四年 陵濟鵠寺 今崇福寺 有也崔致遠所立碑(《삼국유사》 왕력)
- B-② 元聖大王 伊飡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居二宰 … 宣德王崩 國入欲奉周元爲王 將迎入宮 家在川北 忽川漲不得渡 王先入宮即位 上宰之徒衆皆來附之 拜賀新登之主 是爲元聖大王 諱敬信 金(氏)武 盖厚夢之應也 周元退居溟州 王既登極 時餘山已卒矣 召其子孫賜爵 王之孫有五人 惠忠太子 憲平太子 禮英 匪干 大龍夫人 小龍夫人等也 … 王之考大角干孝讓 傳祖宗萬坡息笛 乃傳於王 … 追封祖訓入匪干爲興平大王 會祖義官匪干爲神英大王 高祖法宣大阿干爲玄聖大王 玄聖大王 玄聖之考即摩叱次匪干(《삼국유사》 권2, 원성대왕)
- B-③ 京城之東北二十許里 暗谷村之北 有鑿藏寺 第三十八元聖大王之考大阿干孝讓追封明德大王之爲叔父波珍喰追崇所創也(《삼국유사》 권3, 무장사미타전)
- C-① 其年 良相卒 立上相敬信爲王 令襲其官爵 敬信即從兄弟也(《구당서》 권199 상, 열전149상 동이전 신라)
- C-② 是年死 立良相從父弟敬信襲王(《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전)
- D-①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甥姊妹三人業以成在之 甥者 零妙寺言寂法師在於 姊者 照文皇太后君姊在於 妹者 敬信大王姊在也(<葛項寺石塔記>)
- D-② 昔波珍喰金元良者 炤文王后之元舅 肅貞王后之外祖也(<승복사비>)

### 3. 39대 소성왕

- A-① 昭聖或云昭成王立 諱俊邕 元聖王太子仁謙之子也 母金氏 妃金氏桂花夫人 大阿浪叔明女也 元聖大王元年 封子仁謙爲太子 至七年卒 元聖養其子於宮中 五年 奉使大唐 受位大阿浪 六年 以波珍喰爲宰相 七年爲侍中 八年爲兵部令 十一年爲太子 及元聖薨繼位(《삼국사기》 권10, 소성왕 즉위조)
- A-② 夏五月 追封考惠忠太子爲惠忠大王 … 八月 追封母金氏爲聖穆太后(《삼국사기》 권10, 소성왕 원년)
- B 第三十九 昭聖王 一作昭成王 金氏 名俊邕 父惠忠太子 母聖穆太后 妃桂花王后 夙明公女 己卯立而崩(《삼국유사》 왕력)
- C-① 十四年 敬信卒 其子先敬信亡 國人立敬信嫡孫俊邕爲王 十六年 授俊邕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新羅王 … 其年七月 力奇上言 貞元十六年 奉詔册臣故主金俊

邕爲新羅王 母申氏爲太妃 妻叔氏爲王妃 册使韋丹至中路 知俊邕薨 其册却迴 在中書省 今臣還國 伏請授臣以歸 敕金俊邕等册 宜令鴻臚寺於中書省受領 至寺宣授與金力奇 令奉歸國 仍賜其叔彥昇門戟 令本國準例給(《구당서》 권 199상, 열전149상 동이전 신라)

C-② 十四年 死 無子 立嫡孫俊邕 … 往歲册故主俊邕爲王 母申太妃 妻叔妃 而俊邕不幸 册今留省中 臣請授以歸(《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전)

#### 4. 40대 애장왕

A-① 哀莊王立 諱清明 昭聖王太子也 母金氏桂花夫人 卽位時年十三歲 阿滄兵部 令彥昇攝政 初元聖之薨也 唐德宗遣司封郎中兼御史中丞韋丹 持節吊慰 且册命王俊邕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新羅王 丹至鄆州 聞王薨乃還 秋七月 王更名重熙(《삼국사기》 권10, 애장왕 즉위조)

A-② 春二月 謁始祖廟.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 及王高祖明德大王 曾祖元聖大王 皇祖惠忠大王 皇考昭聖大王爲五廟(《삼국사기》 권10, 애장왕 2년)

A-③ 夏四月 以阿滄金宙碧之女 入後宮(《삼국사기》 권10, 애장왕 3년)

A-④ 春正月 封母金氏爲大皇后 妃朴氏爲王后 是年 唐德宗崩 順宗遣兵部郎中兼御史大夫元季方 告哀 … 其母叔氏爲大妃 王母父叔明 奈勿王十三世孫 則母姓金氏 以父名爲叔氏誤也 妻朴氏爲妃(《삼국사기》 권10, 애장왕 6년)

A-⑤ 力奇上言 貞元十六年 詔册臣故主金俊邕爲新羅王 母申氏爲大妃 妻叔氏爲王妃 册使韋丹至中路 聞王薨却迴 其册在中書省 … 仍賜王叔彥昇及其弟仲恭等門戟 令本國準例給之 申氏 金神述之女 以神字同韻 申爲氏 誤也(《삼국사기》 권10, 애장왕 9년 2월)

B 第四十 哀莊王 金氏 名重熙 一云清明 父昭聖 母桂花王后 辛卯立 理十年 元和四年己丑七月十九日 王之叔父憲德興德兩伊干所害而崩(《삼국유사》 왕력)

C-① 司封郎中兼御史中丞韋丹持節册命 丹至鄆州 聞俊邕卒 其子重興立 重興立 立字各本原作無 據唐會要卷九五 册府卷九六五改 詔丹還 永貞元年 詔遣兵部郎中元季方持節册重興爲王(《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 동이전 신라)

C-② 俊邕死 丹還 子重興立 … 又爲其宰相金彥昇金仲恭 王之弟蘇金添明巧門戟 詔皆可(《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전)

### 5. 41대 헌덕왕

- A-① 王叔父彥昇與弟伊滄悌邕 將兵入內 作亂弑王 王弟體明侍衛王并害之 追諡王爲哀莊(《삼국사기》 권10, 애장왕 10년)
- A-② 憲德王立 諱彥昇 昭聖王同母弟也 元聖王六年 奉使大唐 受位大阿滄 七年 誅逆臣爲迺滄 十年爲侍中 十一年 以伊滄爲宰相 十二年爲兵部令 哀莊王元年爲角干 二年爲御龍省私臣 未幾爲上大等 至是即位 妃貴勝夫人 禮英角干女也 … 冊立王爲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 上柱國新羅王 冊妻貞氏爲妃 賜大宰相金崇斌等三人門戟 按王妃禮英角干女也 今云貞氏 未詳(《삼국사기》 권10, 헌덕왕 즉위조)
- B 第四十一 憲德王 金氏 名彥升 昭聖之母弟 妃貴勝狼 諡皇娥王后 忠恭角干之女 己丑立 理十九年 陵在泉林村北(《삼국유사》 왕력)
- C-① 七年 重興卒 立其相金彥昇爲王 遣使金昌南等來告哀 其年七月 授彥昇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國王 彥昇妻貞氏冊爲妃 仍賜其宰相金崇斌等三人戟 亦令本國準例給(《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 동이전 신라)
- C-② 七年死 彥昇來 來告喪 命職方員外郎崔廷弔 且命新王 以妻貞爲妃(《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전)

### 6. 42대 흥덕왕

- A-① 興德王立 諱秀宗 後改爲景徽 憲德王同母弟也 冬十二月 妃章和夫人卒 追封爲定穆王后 王思不能忘 悵然不樂 羣臣表請再納妃 王曰 隻鳥有喪匹之悲 况失良匹 何忍無情遽再娶乎 遂不從 亦不親近女侍 左右使令 唯宦豎而已 章和姓金氏 昭聖王之女也(《삼국사기》 권10, 헌덕왕 즉위조)
- A-② 春正月 親祀神宮 唐文宗聞王薨 廢朝 命太子左諭德兼御史中丞源寂 持節吊祭 仍冊立嗣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新羅王 母朴氏爲大妃 妻朴氏爲妃(《삼국사기》 권10, 흥덕왕 2년)
- B 第四十二 興德王 金氏 名景暉 憲德母弟 妃昌花夫人 諡定穆王后 昭聖之女 丙午立 理十年 陵在安康北比火壤 與妃昌花合葬(《삼국유사》 왕력)
- C-① 五年 金彥昇卒 以嗣子金景徽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新羅王 景徽母朴氏爲太妃 妻朴氏爲妃(《구당서》 권199상, 열전149상 동이전 신라)

C-② 彥昇死 子景徽立(《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전)

D 昭成 於秘戶葬△△臣△△ 壽六十是日也 … 太祖星漢品物 大命在於侯 卅四代孫△粹業(<신라흥덕왕릉비단석>)

## 7. 43대 희강왕

A-① 僖康王立 諱悌隆 一云悌顯 元聖大王孫伊滄憲貞一云草奴之子也 母包道夫人 妃文穆夫人 葛文王忠恭之女 初興德王之薨也 其堂弟均貞 堂弟之子悌隆 皆欲爲君 於是 侍中金明 阿滄弘裴萱伯等 奉悌隆 阿滄祐徵與姪禮徵及金陽 奉其父均貞 一時入內相戰 金陽中箭 與祐徵等逃走 均貞遇害 而後悌隆乃得即位(《삼국사기》 권10, 희강왕 즉위조)

A-② 追封考爲翌成大王 母朴氏爲順成太后(《삼국사기》 권10, 희강왕 2년 정월)

B 第四十三 僖康王 金氏 名愷隆一作悌顯 父憲貞角干 諡興聖大王一作翌成 禮英匪干子也 母美道夫人一作深乃夫人一云巴利夫人 諡順成太后 忠衍大阿干之女也 妃文穆王后 忠孝角干之女一云重恭角干 丙辰年立 理二年(《삼국유사》 왕력)

## 8. 44대 민애왕

A 閔哀王立 姓金氏 諱明 元聖大王之曾孫也 大阿滄忠恭之子 累官爲上大等 與侍中利弘 逼王殺之 自立爲王 追諡考爲宣康大王 母朴氏 貴寶夫人爲宣懿太后 妻金氏爲允容王后 拜伊滄金貴爲上大等 阿滄憲崇爲侍中 … 冬十二月 金陽爲平東將軍 與閔長張弁鄭年駱金張建榮李順行 統軍 至武州鐵冶縣 王使大監金敏周 出軍迎戰 遣駱金李順行 以馬軍三千突擊 殺傷殆盡(《삼국사기》 권10, 민애왕 즉위조)

B 第四十四 閔一作敏哀王 金氏 名明 父忠恭角干追封宣康大王 母追封惠忠王之女貴巴夫人 諡宣懿皇后 妃牙容皇后 永公角干之女 戊午立 至己未正月二十二日崩(《삼국유사》 왕력)

D 敏哀大王 諱肌 宣康大王之長子 今上之老舅 以開成己未之年 太簇之月下旬 有三日 奄奔蒼生春秋二十三葬(<민애대왕석탑기>)

## 9. 45대 신무왕

A 神武王立 諱祐徵 元聖大王孫均貞上大等之子 僖康王之從弟也 禮徵等旣清

宮禁 備禮迎之即位 追尊祖伊浪禮英 一云孝眞 爲惠康大王 考爲成德大王 母朴氏眞嬌夫人爲憲穆太后 立子慶膺爲太子(《삼국사기》 권10, 신무왕 즉위조)

- B 第四十五 神虎(武)王 金氏 名佑徵 父均貞角干 追封成德大王 母貞嬌夫人 追封祖禮英 爲惠康大王 妃貞從一作繼太后 △明海△之女 己未四月立 至十一月二十三日崩(《삼국유사》 왕력)

### 10. 46대 문성왕

- A-① 文聖王立 諱慶膺 神武王太子 母貞繼夫人 一云定宗太后(《삼국사기》 권11, 문성왕 즉위조)

- A-② 秋七月 唐武宗勅 歸國新羅官前入新羅 宣慰副使充연州都督府司馬賜緋漁袋 金雲卿 可淄州長史仍爲使 册王爲開府儀同三司檢校太尉使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兼持節充寧海軍使上柱國新羅王 妻朴氏爲王妃(《삼국사기》 권11, 문성왕 3년)

- B 第四十六 文聖王 金氏 名慶膺 父神虎(武)王 母貞從太后 妃昭明王后 己未 十一月立 理十九年(《삼국유사》 왕력)

- D 奉 教宣修造塔使 從弟舍知行熊州祁梁縣令 金銳 都監修造大德判政法事 啓玄 檢校 修造僧前奉德寺上座 清玄 專知修造僧康州咸安郡統 教章 同監修造使從叔行武州長史 金繼宗 同監修造使從叔新受康州泗水縣令 金勳榮(<창림사무구정답원기>)

### 11. 47대 헌안왕

- A 憲安王立 諱誼靖 一云祐靖 神武王之異母弟也 母照明夫人 宣康王之女 以文聖顧命即位 大赦 拜伊浪金安爲上大等(《삼국사기》 권11, 헌안왕 즉위조)

- B 第四十七 憲安王 金氏 名誼靖 神虎(武)王之弟 母昕明夫人 戊寅立 理三年(《삼국유사》 왕력)

### 12. 48대 경문왕

- A-① 春正月 王寢疾彌留 謂左右曰 寡人不幸無男子有女 吾邦故事 雖有善德眞德二女主 然近於牝雞之晨 不可法也 甥膺廉 年雖幼少 有老成之德 卿等立而事之 必不墜祖宗之令緒 則寡人死且不朽矣 是月二十九日 夢 諡曰憲安 葬于孔

雀趾(《삼국사기》 권11, 헌안왕 5년)

- A-② 景文王立 諱膺廉 膺一作疑 僖康王子啓明阿滄之子也 母曰光和一云光義夫人 妃金氏寧花夫人(《삼국사기》 권11, 경문왕 즉위조)
- A-③ 冬十月 桃李華 十一月 無雪 納寧花夫人弟爲次妃(《삼국사기》 권11, 경문왕 3년)
- A-④ 春正月 封王考爲懿恭大王 母朴氏光和夫人爲光懿王太后 夫人金氏爲文懿王妃 立王子晟爲王太子(《삼국사기》 권11, 경문왕 6년)
- B 第四十八 景文王 金氏 名膺廉 父啓明角干 追封義一作懿恭大王 卽僖康王之 子也 母神虎(武)王之女光和夫人 妃文資皇后 憲安王之女 辛巳立 理十四年 (《삼국유사》 왕력)
- D-① 今上卽位十一年 咸通辛卯歲恨其△ 傾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爲△臣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
- D-② 見先大王冕服拜爲師 君夫人世子旣太弟相國 追奉尊諡惠成大王 群公子公孫環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강답비문>)
- D-③ 景文大王主 文懿皇后主 大娘主 願燈立炷 唐咸通九年戊子中春夕(<개천사석 등기>)
- D-④ 咸通五年冬 端儀長翁主未亡人爲稱當來佛是歸(<봉암사지증대사적조답비>)

### 13. 49대 헌강왕

- A 憲康王立 諱晟 景文王之太子 母文懿王后 妃懿明夫人 王性聰敏 愛看書 目所一覽 皆誦於口 卽位 拜伊滄魏弘爲上大等 大阿滄又謙爲侍中 大赦內外殊死已下(《삼국사기》 권11, 헌강왕 즉위조)
- B 第四十九 憲康王 金氏 名晟 父景文王 母文資皇后 妃懿明夫人 一云義明王后 乙未立 理十一年(《삼국유사》 왕력)
- D-① 乾符帝錫命之歲令國內舌抄有可道者貢興利除害策別用蠻牋書言荷天寵有所自因 垂益國之間大師引出何尙之獻替宋文帝心聲爲對太傅王覽謂介弟南宮相曰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강답비문>)
- D-② 法諱讓景俗姓金氏 … 和尚王父藹 元聖王之表來孫 憲康王之表庶舅(<태자사 낭공대사비후기>)

### 14. 50대 정강왕

- A 定康王立 諱晃 景文王之第二子也 (《삼국사기》 권11, 정강왕 즉위조)

- B 第五十 定康王 金氏 名晁 閔哀王之母弟 丙午立而崩(《삼국유사》 왕력)
- D-① 遇定康大王功成遺礪韻叶吹簾旣嗣守丕圖將繼成遺績無安厥位未喪其文而遠逐日弟兄據值西山之影高憑月姊妹永流東海之光 伏惟大王殿下瓊萼聯芳璇源激爽體英坤德續懿天倫(<송복사비>)

### 15. 51대 진성여왕

- A-① 夏五月 王疾病 謂侍中俊興曰 孤之病革矣 必不復起 不幸無嗣子 然妹曼天資明銳 骨法似丈夫 卿等宜做善德 眞德古事 立之可也(《삼국사기》 권11, 정강왕 2년)
- A-② 眞聖王立 諱曼 憲康王之女弟也 崔致遠文集第二卷 謝追贈表云 臣坦言 伏奉制旨 追贈亡父臣凝爲太師 亡兄臣晟爲太傅 又納旌節表云 臣長兄國王晟 以去光啓三年七月五日 奄御聖代 臣姪男嶢生未周晬 臣仲兄晃權統藩垣 又未經朞月 遠謝明時 以此言之 景文王諱凝 本紀則云膺廉 眞聖王諱坦 本紀則云曼 又定康王晁以光啓三年薨 本紀謂 二年薨 皆不知孰是 (《삼국사기》 권 11, 진성여왕 즉위조)
- B-① 第五十一 眞聖女王 金氏 名曼憲 卽定康王之同母妹也 王之匹魏弘大角干 追封惠成大王 丁未立 理十年 丁巳遜位于小子孝恭王 十二月崩 火葬 散骨于牟梁西岳 一作未黃山(《삼국유사》 왕력)
- B-② 此王代 阿殮良貝 王之季子也(《삼국사기》 권2, 진성여왕거타지)
- D-① 遇定康大王功成遺礪韻叶吹簾旣嗣守丕圖將繼成遺績無安厥位未喪其文而遠逐日弟兄據值西山之影高憑月姊妹永流東海之光伏惟大王殿下瓊萼聯芳璇源激爽體英坤德續懿天倫(<송복사비>)

### 16. 52대 효공왕

- A-① 冬十月 立憲康王庶子嶢爲太子 初憲康王觀獵 行道傍見一女子 姿質佳麗 王心愛之 命後車載 到帷宮野合 卽有娠而生子 及長體貌魁傑 名曰嶢 眞聖聞之 喚入內 以手撫其背曰 孤之兄弟姊妹 骨法異於人 此兒 背上兩骨隆起 眞憲康王之子也 仍命有司 備禮封崇(《삼국사기》 권11, 진성여왕 9년)
- A-② 夏六月 王謂左右曰 近年以來 百姓困窮 盜賊蜂起 此孤之不德也 避賢讓位 吾意決矣 禪位於太子嶢 於是 遣使入唐表奏曰 臣某言 居義仲之官 非臣素分 守延陵之節 是臣良圖 以臣姪男嶢 是臣亡兄晟息 年將志學 器可興宗 不假外

求 爰從內舉 近已俾權藩寄 用靖國災 冬十二月乙巳 王薨於北宮 諡曰眞聖 葬于黃山(《삼국사기》 권11, 진성여왕 11년)

- A-③ 孝恭王立 諱曉 憲康王之庶子 母金氏 大赦 增文武百官爵一級(《삼국사기》 권12, 효공왕 즉위조)
- A-④ 春正月 尊母金氏爲義明王太后(《삼국사기》 권12, 효공왕 2년)
- A-⑤ 春三月 納伊滄又謙之女爲妃 (《삼국사기》 권12, 효공왕 3년)
- B 第五十二 孝恭王 金氏 名曉 父憲康王 母文資王后 丁巳立 理十五年 火葬師子寺北 骨藏于仇知堤東山脇(《삼국유사》 왕력)

### 17. 53대 신덕왕

- A 神德王立 姓朴氏 諱景暉 阿達羅王遠孫 父父兼 一云銳謙 事定康大王 爲大阿滄 母貞和夫人 妃金氏 憲康大王之女 孝恭王薨 無子 爲國人推戴即位(《삼국사기》 권12, 신덕왕 즉위조)
- B 第五十三 神德王 朴氏 名景徽 本名秀宗 母貞花夫人 夫人之父順弘角干 追諡成虎(武)大王 祖元弘角干 乃阿達羅王之遠孫 父文元伊干 追封興廉大王 祖文官海干 義父 銳謙角干 追封宣成大王 妃資成王后 一云懿成 又孝資 壬申立 理五年 火葬藏骨于箴峴南(《삼국유사》 왕력)

### 18. 54대 경명왕

- A-① 景明王立 諱昇英 神德王之太子 母義成王后(《삼국사기》 권12, 경명왕 즉위조)
- A-② 八月 拜王弟伊滄魏膺爲上大等 大阿滄裕廉爲侍中(《삼국사기》 권12, 경명왕 원년)
- B 第五十四 景明王 朴氏 名昇英 父神德 母資成 妃長沙宅 大尊角干 追封聖僖大王之子 大尊卽水宗伊干之子 丁丑立 理七年 火葬皇福寺 散骨于省等仍山西 (《삼국유사》 왕력)
- C-① 同光元年(923) 新羅國王金朴英遣使者來朝貢 長興四年 權知國事金溥遣使來 朴英·溥世次 卒立 史皆失其紀(《신운대사》 권74, 四夷附錄 제3 신라)

### 19. 55대 경애왕

- A 景哀王立 諱魏膺 景明王同母弟也(《삼국사기》 권12, 경애왕 즉위조)
- B 第五十五 景哀王 朴氏 名魏膺 景明之母弟也 母資成 甲申立 理二年(《삼국유사》 왕력)

### 20. 56대 경순왕

- A-① 甄萱以救兵未至 以冬十一月 掩入王京 王與妃嬪宗戚 遊鮑石亭宴娛 不覺賊兵至 倉猝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 四散奔走逃竄 其爲賊所虜者 無貴賤皆駭汗匍匐 乞爲奴僕而不免 萱又縱其兵 剽掠公私財物 略盡 入處宮闕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數人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盡 强淫王妃 縱其下 亂其妃妾 乃立王之族弟 權知國事 是爲敬順王(《삼국사기》 권12, 경애왕 4년)
- A-② 敬順王立 諱傳 文聖大王之裔孫 孝宗伊淊之子也 母桂娥太后 爲甄萱所舉即位 舉前王屍 殯於西堂 與羣下慟哭 上諡曰景哀 葬南山蟹目嶺 太祖遣使弔祭(《삼국사기》 권12, 경순왕 즉위조)
- A-③ 故十二月日寄書太祖曰 昨者國相金雄廉等 將召足下入京 有同鼉應鼉聲 是欲鷓披隼翼 必使生靈塗炭 宗社丘墟 僕是用先着祖鞭 獨揮韓鉞 誓百寮如皦日 諭六部以義風 不意姦臣遁逃 邦君薨變 遂奉景明王之表弟獻康王之外孫 勸即尊位 再造危邦 喪君有君 於是乎在(《삼국사기》 권50, 견훤열전 천성2년 12월)
- B 第五十六 敬順王 金氏 名傳 父孝宗伊干 追封神興大王 祖官△角干 追封懿興大王 母桂娥太后 憲康王之女也. 丁亥立 理八年. 乙未納土歸于太祖. 太平興國三年 戊寅薨 陵在△△東向洞(《삼국유사》 왕력)
- C-① 長興四年 權知國事金溥遣使來 朴英·溥世次 卒立 史皆失其紀 自晉已後不復至(《신오대사》 권74, 四夷附錄 제3 신라)
- D 王諱傳 新羅人也 其始祖曰闕智 … 十二世眞宗 十三世欽運 十四世摩次 十五世法宣追崇玄聖王 十六世義寬追崇神英王 十七世魏文追崇興平王 十八世孝讓追崇明德王 十九世元聖王始設讀書出身科 二十世禮英 二十一世均貞追崇成德王 二十二世神武王 二十三世文聖王 二十四世安 二十五世敏恭 二十六世實虹追崇懿興王 二十七世孝宗追崇神興王 二十八世 敬順王是也 王繼景哀王朴氏而立 … 王前妃朴氏生子男三人女一人 後妃王氏生子男五人女二人(《신라경순왕전비》)